

詩序와 詩經

龍 宇 純*

1. 詩序와 詩經解釋

本 論文에서 이른바 詩序라 함은 詩經의 毛詩序를 指稱한다. 이 序가 도대체 어느 시대, 그리고 누구에 의해 쓰여졌는가는 확실히 지적할 수 없지만, 예로부터 詩經을 읽는 準據가 되어왔고 宋代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 전부를 믿을만한 것은 아니라고 批評하는 學者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現象이 줄곧 發展해 오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누구나 대체로 詩序가 詩經에서 결코 어떤 特殊한 地位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마음대로 批評할 수도 있고, 止揚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오늘날 詩經을 읽는데 있어, 여전히 無分別하게 詩序를 受容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陳腐한 學究姿勢로 보일 것이다.

詩序를 擁護하려 드는 사람 또한 當然히 없을 리가 없다. 일찌기 어느 學者가 唐人詩인…「洞房昨夜停紅燭，待曉堂前拜舅姑。妝罷低聲問夫婿，畫眉深淺入時無。」를 들어서 “이와 같은 詩는 만약 그 原來의 題目이 보이지 않거나, 標題가 詩經에서처럼 맨 앞句의 몇字를 取해서 篇名으로 삼은 것이라면, 아마 新婚婦人이 지은 것이라고 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詩의 作者는 분명히 朱慶餘이며, 그 詩의 題目은 「近試上張水部」이므로 이것은, 完全히 詩序를 不信하고 오로지 詩經의 本文에 依據해서 詩旨를 論해야만 한다는 主張이 실제로는 결코 正確하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한 것을 본 적이 있다. 이 例

* 中華民國 國立臺灣大學 教授

이 글은 中國學國際學術大會(1984.9; 全北全州)에서 發表된 論文임.

는 매우 훌륭히提起되었다고 하겠으나, 다른 觀點으로 볼 때 이 詩는 “唐詩三百首”中에 실려 있고, “唐詩三百首”로 말하자면 이와같이 題目과 內容이 表面上으로 서로 符合하지 않는 詩는 아마도 더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그리고 “詩三百篇”中에서는 詩序에서 말한 바와 서로 符合되는 詩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같은 三百首의 詩이면서도 그렇게 이렇게 다른 점에서 이 論點은 學者들의 詩序 不信 態度를 고칠만큼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2. 詩序와 詩經本文

공정하게 論하자면, 詩經을 읽을 때는 반드시 詩經의 本文에 根據해서 解釋을 해야지, 詩序를 盲從해서는 안된다라는 말은 매우 正確하고 理致에 符合되는, 즉 자명한 眞理이므로 어느 누구도 反對할 理由가 없을 것이다. 또 詩에는 어디에나 適用될 수 있는 訓誥가 없으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意思에 따라 詩意를 찾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詩序에 同意를 하느냐 않느냐의 問題와, 詩序에 錯誤가 있느냐 없느냐, 또는 根據가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는 別個의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詩序가 存在할 價値가 있느냐 없느냐의 問題는 어느 한 個人이나 어떤 몇몇이 詩序를 否定함으로써 해서 그 影響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니며, 몇몇 사람이 절령 “詩經本文에 根據하면 詩序에서 말한 바를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詩經 本文으로부터 詩序의 허구성을 날날이 證明한다”라는 結果는 결코 같은 問題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맨먼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logic 問題이고 이와 같은 점으로 본다면, 朱慶餘의 「近試上張水部」一詩는 충분한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實際로, 宋代 以來 學者들이 詩序를 批評하고 詩序를 믿지 못한다고 主張하는 주된 理由는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점이

었다. 그러나 한편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이 理由에 대해서는 때로 자못 檢討해 볼 餘地가 있으며, 또 한편으로 똑같은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學者들의 取舍態度가 상당한 정도로 一致되지 않아, 主觀的인 냄새가 지나치게 짙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衛風·河廣篇을 例로 들어 보자.

誰謂河廣? 一葦杭之. 誰謂宋遠?

跂予望之. 誰謂河廣? 曾不容刀.

誰謂宋遠? 曾不崇朝.

詩序에서는 “宋 襄公의 어머니가 衛나라로 시집을 가서 襄公을 잊지 못해 지은 노래”¹⁾라 하였다.

글자로만 본다면, 당연히 이 詩와 宋 襄公의 어머니와의 관련성은 찾아볼 수 없고, 또 한편으로 宋과 衛는 원래 江(黃河)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서 宋의 한 女人이 衛나라로 시집 오거나, 宋의 어떤 사람이 衛로 移民와서 살았을 可能性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詩序를 盲從해서는 안된다고 主張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確實한 理由가 될 수 있다. 이런 까닭으로 오늘날 詩序를 取하여 이 詩를 解釋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여기에서 나아가 學者들은 詩序를 積極的으로 否定할 만한 證據를 찾으려 한다. 崔述은 “讀風偶識”에서 말하기를, “春秋 閔公 二년에 북방 오랑캐가 衛를 滅亡시키자, 衛人들은 黃河를 건너 曹에 와서 살았다. 僖公 九年에 宋 桓公이 죽었다. 그러므로 襄公代에 衛는 이미 도읍을 黃河 以南으로 옮겼으므로 宋에 갈려면 黃河를 건너지 않아도 갈 수 있었다. 詩에 어찌 이처럼 쓰여 있겠는가?”²⁾라 했다.

이로 말미암아, 學者들은 宋 王質의 詩總聞說을 改用하여 衛나라로

1) 宋襄公母歸於衛，思而不止，故作是詩也。

2) 春秋閔公二年 狄滅衛，衛人渡黃河而廬於曹。僖公九年，宋桓公乃卒。則襄公之世，衛已徙黃河之南，適宋不待杭河而後度也，詩安得作如是言乎？

移民간 宋人이 지은 것이라고 看做했는데, 이로부터 詩序는 完全히 否定되었다. 그러나, 詩의 作法에는 본래 賦, 比, 興 三體가 있는데, 만약 이 詩가 賦體가 아니고 比體라 한다면 詩中の 主人公은 여전히 宋襄公의 母親일 수 있으며, 이 詩가 賦體가 아니고 比體라고 말할지라도 아무런 問題될 點은 없는 것이다.

이와 相反되는 例로 다시 唐風의 無衣를 들어 보자.

豈曰無衣七兮? 不如子之衣, 安且吉兮.

豈曰無衣六兮? 不如子之衣, 安且燠兮.

詩序에서 말하기를, "無衣는 晉 武公을 기린 것이다. 武公이 처음 晉나라를 併合했을 때, 그의 大夫가 그를 위해 天子의 使臣에게 命을 請하면서 이 詩를 지었다"³⁾고 하였다. 詩經의 本文으로부터 보면 역시 晉 武公과의 關係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河廣序를 不信하는 學者도 오히려 이 序는 取하고, 또한 비록 이 두 詩 모두 詩序를 取하지 않는 學者의 경우에도, 詩經今注에서처럼, 여전히 이 詩가 貴族의 作品이라고는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公明正大하게 생각한다면, 詩經 本文의 어느 句의 말이나 글자가 晉 武公이나 貴族과 關係가 있다는 말인가? 또한, 만약 어떤 사람이, "이것은 단지 매우 平凡한 사람이, 그의 妻나 女友 또는 친구가 그를 위해 옷을 準備했거나 그에게 옷을 주어서 입어 보니까 남달리 새로운 느낌이었고 또 原來의 옷 보다 훨씬 훌륭하다고 생각하여 이 詩를 지었다." 라고 主張한다면, 또 다른 수확을 하나 거둔 셈으로, 詩序에 있어 한 首가 더 부정되는게 아니겠는가?

學者들은 이 見解에 同意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詩經에서는 「豈曰無衣七兮」 「豈曰無衣六兮」라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고, 毛傳에서 말한 바 "侯伯의 禮는 七命이고, 冕服은 七章이다. 天子의 卿은 六命으로, 車旗衣服은 六으로 節을 삼는다"⁴⁾에 따르면 결코 普通사람이 지었

3) 無衣, 美晉武公也. 武公始并晉國, 其大夫爲之請命乎天子之使, 而作是詩也.

4) "侯伯之禮七命, 冕服七章. 天子之卿六命, 車旗衣服以六爲節."

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간에, 晉 武公이라 고는 확인할 도리가 없다. 더우기 古代에는 七命之服은 있었을 지언정 六命之服은 없었으므로, 毛傳의 「衣六」에 대한 解釋은 분명히 原文과 符合되지 않는다. (參考; 孔穎達이 毛傳을 補充하여 말하기를, “車旗라 함은 卿이 거느리는 수레 六乘과 旗에 다는 六旒를 말함이고, 衣服이라 함은 더리에 쓰는 冠을 말한 것으로 이는 六玉으로 裝飾하고, 冠을 쓸 때는 여섯 번을 접는다”⁵⁾라 하였다.) 鄭箋에서 이미 毛傳을 取할 수 없는 것으로 看做하여 “七을 六으로 바꾸어 말한 것은 겸손의 뜻이다. 侯伯 대접을 못받을 바에야 六命의 옷을 받아 天子의 卿에 자리할 수 있는게 그러지 않은 것 보다는 낫다.”(「變七言六者, 謙也. 不敢必當侯伯, 得受六命之服列於天子之卿, 猶愈乎不」)라 말을 바꾸었다. 그는 또한 詩經의 本文에서, 一章에서 「衣六」이라 말하고, 二章에서는 「衣五」라 말해도 마찬가지로 겸손하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고, 또 「衣七」下에서 “晉나라에는 옛날에 그것(七命之服)이 있었고 新命之服은 아니다”라 하고 있다.

그러나 詩經의 本文에서는 단지 七을 六으로 고쳐 말한 것뿐인데, 무슨 근거로 하나는 옛날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新命인지 알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詩序에 根據해서 이 詩를 解釋한다는 게, 詩經을 읽을 때 꼭 詩序에 根據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할 때, 實際로도 어떤 다른 方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이러한 말은 당연히 이 詩를 읽을 때 詩序에 根據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詩序를 利用해도, 「衣七」「衣六」은 여전히 옷이 많음을 나타낼 따름이므로 本來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 것이다.

다시 鄭風 緇衣篇을 들어 보자.

緇衣之宜兮，敝，予又改爲兮。適子之館兮，還，予授子之粢兮。緇衣之好兮，

5) 車旗者, 蓋謂卿從車六乘, 旌旗六旒. 衣服者, 指謂冠弁也, 飾則六玉, 冠則六辟積.

敝，予之改造兮，適子之館兮，還，予授子之祭兮。緇衣之蒞兮，敝，予又改作兮。適子之館兮，還，予授子之祭兮。

詩序에서 말하기를, “緇衣는 武公을 기린 것이다. 父子가 함께 周의 司徒였는데 그 職責을 잘 해냈다. 국민들은 이를 칭찬하여 그 德을 기린 것이다”⁶⁾라 하였다. 의외로 많은 學者들이 여기에 同意하고 있는데, 이들은 河廣篇에서 詩序를 取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詩中の 緇衣가 卿士之服이라는 점이 여기서는 唯一한 단서이지만, 鄭에서 緇衣之服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이 武公 한 사람 뿐이겠는가? 즉 이것은 실제로 단서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意見은 이 詩가 분명히 武公을 美化하여 지은 것이 아니더라는 論理는 결코 아니고, 단지 無衣나 緇衣와 같은 詩에서 詩序를 믿을 수 있다면, 河廣篇에 있어 꼭 詩序를 믿어서는 안될 理由는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處理方式에 있어 만약 양쪽 모두를 완전한 客觀에 依據하여 適當함을 求하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同意할 만한 方法은 없는 것이다.

3. 詩序의 美刺

詩序에서는 곧잘 美刺로서 說明하곤 하는데, 이것은 學者들이 가장 옳지 않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여러 詩篇에서는 심지어 코웃음까지도 받을 만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美刺說을 수증할 수 없는지의 여부는 注意를 기울여 追求해야지, “詩經 本文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는게 再論의 여지가 없는 確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먼저 魏風의 葛屨에 注意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

糾糾葛屨，可以履霜。摻摻女手，可以縫裳。要之襪之，好人服之。好人提提，宛然左辟，佩其象揅。維是褊心，是以爲刺。

6) 緇衣，美武公也。父子並爲周司徒，善於其職，國人宜之，故美其德。

이 詩는 本文에서 “維是褊心，是以爲刺”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詩序의 刺說을 보지 않더라도 刺詩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詩序에서는 “葛履詩는 褊急함을 諷刺한 것이다. 魏나라는 땅이 비좁아 백성들은 잔피가 많고 利를 탐하며, 임금은 儉嗇하고 마음이 褊急하여 德으로 다스리지 못했다.”⁷⁾라 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여전히 「刺褊也」 以下로부터의 詩序를 믿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역시 “만약 이 詩에 맨 나중의 두 句가 없었다면, 詩序의 刺褊之說도 반드시 사람들에게 취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것은 매우 勤勉하고 儉素한 女人이, 그녀가 순수 정성껏 바느질한 옷을 남편에게 입혀 놓고서 이 詩에서와 같은 절절한 모습의 남편을 보고는, 억누를 수 없는 喜悅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 詩를 지었다.” 만약 그렇다면, 이 詩가 刺詩일수 있는가 아닌가의 觀點으로 보는 경우, 實際作用上이나 文學技巧上을 莫論하고, 마지막 두 句는 모두 蛇足이고 본래는 마땅히 없었어야 될 것이다. 그래 나는 여기에서 “결국 어떤 詩가 刺詩이냐 아니냐는 참으로 주의깊게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깊이 體得하게 되었다. 詩序의 「魏地陜隘」 以下의 말에 대해서, 正義는 말하기를 ;

“葛履詩를 지은 것은 褊急함을 諷刺한 것이다. 그것을 諷刺한 까닭은 魏나라의 땅이 비좁아서 그 백성들은 잔피가 많고 거짓을 공교롭게 꾸며서 그 利益을 좇고, 임금은 또한 儉嗇하고 褊急하여 德教로써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여 魏나라의 風俗이 私利私慾을 追求하게끔 하므로 이것을 諷刺한 것이다. 「魏地陜隘」라고 말한 것은 만약 땅이 넓고 백성이 적으면, 民情은 私利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나, 땅이 좁고 人口가 稠密하면 耕作할 땅이 없어, 衣食이 충분하지 못하므로 機巧가 생겨나기 쉽다는 말이다. 임금은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儉嗇하고 褊急하여 德教가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했고 따라서 날로 황폐해져 갔다.

7) 葛履，刺褊也。魏地陜隘，其民機巧趨利，其君儉嗇褊急，而無德以將之。

그래서 이러한 民俗君情을 들어서 그것을 諷刺한 것이다. 「機巧趨利」에 대해서는 단 앞 章 四句가 그렇다. 「儉嗇」은 愛物을 말하는 것이고, 「褊急」이란 性躁를 말하는 것이니 이 두가지는 大同小異하다. 그러므로 「刺褊」이라고 바로 이야기했는데, 마지막 章 아래 二句가 이것이다. 11 章 下二句와 아랫 章 上三句는 모두, 시집온지 三個月이 안된 婦人은 옷을 재봉할 수 없다고 읊었으니 이 또한 利를 좇는 것이다.”⁸⁾라 하였다.

詩序의 뜻은 임금된 者가 儉素함이 지나쳐 吝嗇함에 이르렀고, 百姓들이 잔피가 많고 利를 追求하는 心的 態度에 대해, 더욱더 앞서 가는 것에 다름없으므로, 다땅히 德敎로써 그것을 感化시키려 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作詩者의 原意를 확실히 把握한 것이었다. 詩序의 말을 믿지 않는 學者들은 아마 이러한 理致를 看過했을 것이다. 같은 문맥으로는 뒤의 “汾沮洳”詩의 解析도 참고하기 바란다.

또 邶風의 凱風을 보자.

凱風自南，吹彼棘心。棘心夭夭，母氏劬勞。 凱風自南，吹彼棘新。 母氏聖善，我無令人。爰有寒泉，在浚之下。有子七人，母氏勞苦。 睨睨黃鳥，載好其音。 有子七人，莫慰母心。

오늘날 이 詩에 대한 解釋으로는, 通常 孝子가 어머니의 劬勞之恩을 생각하여 마음아파하며 지은 것으로 看做하고 있으나, 詩序를 引用하여 “孝子를 기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詩序에서는 원래 말하기를, “凱風은 孝子를 기린 것이다. 衛나라의 淫風이 流行하자, 비록 일곱 자식을 둔 어머니라 할 지라도 그 집에 가만히 있질 못했다.

8) 作葛屨詩者，刺褊也。所以刺之者，魏之土地既以陜隘，故其民機心巧僞，以趨於利。其君又儉嗇且褊急，而無德敎以將撫之，令魏俗彌趨於利，故刺之也。言「魏地陜隘」者，若地廣民稀，則情不趨利，地陜民稠，耕稼無所，衣食不給，機巧易生。人君不知其非，反復(原作覆，從校勘記改)儉嗇褊急，德敎不加於民，所以日見侵削。故舉其民俗君情以刺之。「機巧趨利」，首(原作者，據校勘記改)章四句是也。「儉嗇」言愛物，「褊急」言性躁，二者大同，故直云「刺褊」，卒章大二句是也。上章下二句，下章上三句，皆申說未三月之婦，不可縫裳，亦是趨利之事(原作士，據校勘記改)也。

그러므로 그 일곱 자식이 그 孝道를 다할수 있음을 기려서 어머니의 마음을 慰勞하고자 지었을 따름이다”⁹⁾라 했다.

“衛之淫風流行” 以下로 부터의 解釋은 오늘날의 學者들에 의해서 완전히 否定되었는데, 그 原因은 역시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나 孟子의 告子 下篇에 記載된 것을 보면, 公孫丑는 高子が 小弁詩를 小人之 詩라고 論한 것을 引用했는데, 孟子는 同意하지 않았다. 이에 公孫丑가 “凱風은 어째서 冤망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으니 孟子가 말하기를 “부모의 허물이 적었기 때문이다”라 했는데, 이 一段의 對話로부터 보면, 公孫丑가 “凱風何以不怨”이라 물어보았고, 孟子는 “親之過小”로 대답했으니, 이 두사람이 理解한 바의 이 詩의 背景은 일곱명의 자식을 가진 어머니에게 過失이 있어도 별 問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學者들은 心理적으로 詩序를 蔑시하려는 感情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孟子의 이러한 文章에도 역시 깊이 疑心을 품고는 多方面으로 추측을 하고 있다. 허나, 우리가 詩經의 本文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을 孟子와 詩序에서는 어떻게 附會해 낼 수 있겠는가? 즉 이것은 처음부터 이처럼 전해져 왔을 것이므로, 疑心을 품을 餘地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孟子의 이 記錄은 後人에게 두가지의 啓示를 준다.

첫째로, 詩序에서 말한 바는 傳授되어온 것이므로 결코 根據없이 끌어낸 것은 아니다. 둘째, 「詩經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다」는 理由가 결코 詩序가 믿을 만하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는 學者들의 詩序에 대한 通常적인 態度를 고칠 수 있을 것이다. 宋人이 詩序를 批評하기 시작한 以來, 朱熹의 集傳에서의 解說은 자주 詩序를 本으로 하여 解釋하고는 있지만, 결코 詩序라는 이름을 앞에 내세우지 않았는데, 이것으로부터도 詩序가 朱熹의 다음에서 차지하고 있는 地位를 알 수 있다. 凱風詩에서 朱熹는 完全히 詩序를 사용

9) 凱風, 美孝子也. 衛之淫風流行, 雖有七子之母, 猶不能安其室, 故美七子能盡其孝道, 以慰其母心, 而成其志爾.

하였고, 그 뜻을 펼쳐서 말하기를,

“어머니는 淫風이 流行하자 스스로 자제할 수 없었고, 여러 아들들은 자신들을 꾸짖긴 했지만 어머니를 섬길 수 없었다. 그레 어머니를 고생시킨 내용으로 글을 지어 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어머니의 잘못을 드러내지 않았던 것은 孝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母以淫風流行，不能自守，而諸子自責，但以不能事母，使母勞苦爲辭，婉辭幾諫，不顯其親之惡，可謂孝矣。”

라 했다. 朱子가 尊重한 것은 당연히 詩序가 아니라, 孟子에서 이와 같은 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尊重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詩를 말할 때, 基本的으로 詩序를 不信하기 때문에 孟子까지도 曲解하려고 한다면 아마도 너무 지나치게 主觀的인 것일 게다.

4. 結 論

以上을 綜合하여 하나의 結論을 얻을 수 있다. 즉, 아마도 詩序를 전부 취할 수는 없겠지만, 一篇의 序라도 廢棄하려 할 때는 마땅히 먼저 그 詩序의 設法대로 충분히 고려해 보고 정말로 근거를 찾을 수 없을 때 다시 廢棄與否를 생각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詩經의 本文으로부터 찾아볼 수 없으면 믿을 수 없다.” 라는 오직 하나의 標準만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스스로 客觀으로 생각한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主觀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아래에서 나는 몇 篇의 詩를 들어, 斟酌, 考慮할 수 있는 實例로 삼고자 한다.

魏風汾沮洳

彼汾沮洳，言采其莫。彼其之子，美無度，美無度，殊異乎公路。彼汾一方，言采其桑。彼其之子，美如英。美如英，殊異乎公行。彼汾一曲，言采其蕢。彼其之子，美如玉，美如玉，殊異乎公族。

魏風園有桃

園有桃，其實之臈。心之憂矣，我歌且謠。不我知者，謂我士也驕。「彼人是哉！

子曰何其？」心之憂矣，其誰知之？其誰知之，蓋亦勿思！

園有棘，其實之食，心之憂矣，聊以行國。不我知者，謂我士也罔極。「彼人是哉！子曰何其！」必之憂矣，其誰知之？其誰知之，蓋亦勿思！

前者의 詩序에서는, “儉素함을 諷刺한 것이다. 그 임금은 儉素하고 勤勉하나 禮를 얻지 못했음을 諷刺한 것이다”¹⁰⁾라고 하였으며, 後者의 詩序에서는, “時局을 諷刺한 것이다. 大夫가 그 임금이 나라가 적고 궁핍하자 儉嗇하여 그 백성을 제대로 부릴수도 없고 德教도 없어서 날로 (나라의 風習이) 쇠약해져 감을 근심하여 이 詩를 지었다”¹¹⁾라고 하고 있다. 오늘날의 學者들은 詩를 말할 때, 園有桃에는 文中에 「心之憂矣」와 같은 말이 있기 때문에, 時局을 근심하여 쓴 작품이거나 임금에 대한 不滿을 表示한 것이다 라고 主張한다. 그러나, 무엇을 근심한다거나, 무엇이 不滿스럽다는 점에 대해서는 具體的인 說明이 없다. 汾沮洳 詩에 이르러서는, 卿과 大夫들이 生活이 지나치게 奢侈하고 民間의 疾苦를 전혀 몰라주는 것을 怨望한 作品이라거나, 어느 大夫가 裝飾하기를 좋아하자 이를 諷刺한 作品이라거나, 심지어는 婦女가 男子를 讚美한 作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詩序를 不信하는 基本 心理에서는 檢소한 것은 미덕인데 왜 풍자를 하는가? (儉是美德, 何以爲刺)의 여덟 字를 끄집어 내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詩序에서 말한 바의 原意를 忽視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두 首의 詩와 앞에서 葛屨 한 首를 함께 고려해본다면 詩序의 意思是 바로 明白해 지며 또한 詩序를 取할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것이다. 먼저 汾沮洳와 葛屨 詩를 比較해 보면, 이 두 詩의 作法이 완전히 서로 같음을 알 수 있다. 園有桃의 每章의 앞 두 句는 上位者의 儉嗇褊急을 말한 것으로 葛屨의 첫 章에 해당되는 셈이다. 가운데의 네 句는 葛屨 二章의 앞 三句에 해당되는 것으로, 上位者의 美德을 말한 것이며, 末句는 上位者의 行爲와

10) 刺儉也. 其君儉以能勤, 刺不得禮也.

11) 刺時也. 大夫憂其君, 國小而迫, 而儉以嗇, 不能用其民而無德教, 日以侵削, 故作是詩也.

그 身分이 서로 맞지 않음을 말하여 隱然中에 諷刺의 意味를 품고 있는 것으로, 葛屨詩의 末 二句에 해당되는데, 葛屨詩에서는 露骨的으로 드러나 있지 않을 따름이다. 園有桃 詩에서도 每章의 앞 二句는 역시 儉嗇褊急을 말한 것으로, 이른바 「彼人是哉, 子曰何其」는 바로 「儉爲美德, 何以爲刺」의 뜻인 것이다. 作者는 上位者의 儉嗇褊急이 百姓들의 機巧趨利하는 風俗을 助長하는 作用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世人들은 이것을 잘 모르고 「謂我士也驕」「謂我士也罔極」이라 하니, 이런 까닭으로 作者는 이 詩를 지어 그것을 끊임없이 근심한 것이다. 이 詩의 主要意旨는 역시 앞의 두 詩와 서로 符合된다 할 것이다. 한 시대에는 그 시대의 政情이 있고, 한 地域에는 그 地域의 民風이 있는 법인데, 이 세개의 詩가 魏風에 연속하여 실려 있고 그것들을 함께 묶어 보는 것은 생각컨대 제멋대로 결부시켰던 것으로는 볼 수 없는게 당연하다. 朱熹의 集傳은 詩序를 不信한 것으로 有名하지만, 이 三首의 詩에 대해서는 오히려 완전히 詩序에 依據했을 뿐 아니라, “葛屨, 汾沮洳, 園有桃 三首는 모두 急迫하고 자질구레한 뜻을 말했다”고 했으니, 결국은 三詩의 相關性에 注意한 것이다. 이는 실로 나의 뜻과 꼭 같다.

節南山之什의 首篇인 節南山으로부터 魚藻之什의 末篇인 何草不黃에 이르기까지의 四十四首의 詩 中에서, 何人斯, 大東, 無將大車, 小明, 都人士, 縣蠻의 六篇을 제외한 모든 詩를 詩序에서는 幽王을 諷刺한 것으로 看做하고 있다. 이들중 여러 詩篇들은 분명히 그 時代의 어지러움을 諷刺하고 있는 것이므로, 幽王과 관련시키는 경우 실사 學者들이 積極的に 肯定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체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內容의 많은 詩篇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楚茨, 信南山, 甫田, 大田, 瞻彼洛矣, 裳裳者華, 桑扈, 鴛鴦, 頍弁, 車鞞, 賓之初筵, 魚藻, 采芣, 黍苗, 隰桑, 瓠葉 등의 十七首에서는 傷時刺亂的인 氣風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文字로 볼 때 오히려 頌美祝禱之詩로 看做되어야만 하

는 詩들도 있다. 그런데 詩序에서는 統合하여 幽王을 諷刺한 것이라고 했으니, 이는 실로 오늘날 사람들이 매우 異常하게 생각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詩篇들에 대해서는 오늘날 詩序를 믿는 사람이 다시는 없게 되었다. 내 스스로의 경험으로도 맨 처음의 한 두 首에서는 나의 意見을 억지로 거기에 맞추어서 받아들이긴 했으나, 대략 모두가 서로 連結된 이 詩들은, 다음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더 容認하기 어렵게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이것은 우연한 한 두 首의 詩가 아니고 서로 連結된 十七首의 詩인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믿지 않게 되는 데도, 詩序의 作者는 어떻게 이와같이 대담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들은 完全히 不可思議할 뿐인데 詩序의 作者는 어떻게 疑心을 품지 않을 수 있는가; 그는 도대체 어디에서 이러한 확고부동함을 이끌어냈을까; 등의 質問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再考해 볼때, 故訓傳을 쓴 毛公이나 箋을 쓴 鄭玄(鄭玄은 여러 經에 두루 注를 한 大學者이다)과 같은 사람들은 聰明이 極에 이른 有識之士인데, 그들이 어찌하여 詩序를 따라서 解說을 해 놓고도 그렇게 泰然自若할 수 있었겠는가? 詩經에서는 「哲人之愚, 亦維斯戾」라 했고, 孔子 또한 甯武子를 稱讚하여 「其愚不可及也」라 했는데 이러한 말을 생각해 보면, 내가 이와같은 詩序를 對面함에 있어 더욱더 감히 가벼운 마음으로 버릴 수가 없는, 一蹴하여 없애버릴 수 없고, 이 詩序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보고 싶을 뿐이다. 詩經 本文에서는 결코 “刺幽王”의 內容을 찾아 볼 수 없는데, 이것은 당연히 글자의 行間으로부터 牽強附會하여 얻어질 수는 없는 것이다. 凱風 序와 孟子에서 解說한 內容이 서로 符合된다는 점을 根據로 하면 응당 詩序는 반드시 받아들일만한 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毛公이나 鄭玄이 無條件的으로 詩序를 接受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觀點에 基礎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또 다른 하나의 見解가 있으니, 詩序의 作者가 이 詩에

대해서 그 作成時代가 幽王代였다고 확실히 알고 있었다고 假定한다면, 한 시대에는 그 時代의 文學背景이 있으므로 나라가 쇠약하고 어려운 時代에서는 頌美之作이 나올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文字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刺詩일 것이며, 文字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옛 일을 들어 오늘을 諷刺할 수도 있고, 말이란 항상 암시한다거나 變化시키기 쉬운 것이므로, 그 效果를 얻는 方法 또한 원래 한 측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自然히 刺詩가 될 수 있으며, 꼭 直言으로 명확히 말해야만 할 것은 없다. 小雅의 詩들을 宮室에서 나왔으므로 그 時代를 論하는 것이 원래 困難한 일은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觀點에서건 이러한 詩篇들이라면 나는 詩序의 論法이 마땅히 尊重되어야만 할 理由가 결코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